

誤譯된 經濟用語에 關한 小考

孫 正 植

(漢陽大學校商經大學 副教授)

I. 序 論

經濟學을 처음 授業했을 때에 그 意味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難解한 經濟用語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難解했던 理由 가운데 하나는 經濟用語가 誤譯되어 通用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西洋으로 부터 經濟學이 導入될 때 英語로 쓰여진 經濟用語의 우리말 翻譯에 不注意 이었는지 또는 非專門家의 손을 빌린 탓이었는지 몇가지 重要한 學術用語가 誤譯되어서 專門 學術誌 뿐만 아니라 日常生活 用語로도 擴散되어 使用되고 있음을 散見할 수 있다.

誤譯된 經濟用語는 用度가 專門誌 뿐만 아니라 一般 新聞, 雜誌等에도 널리 通用되고 있어서 誤譯으로 因한 被害는 學生및 專門家 뿐만 아니라 一般大衆에게도 미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誤譯된 經濟用語는 크게 세가지 類型으로 區分할 수 있겠는 데 첫째는 同一한 英語單語가 A, B 두가지 相異한 意味를 가졌을 때 經濟學 用語로서는 B의 意味로 使用되었는 데 우리말로는 A의 意味로 翻譯한 경우이다.*

둘째는 東西洋 間에는 言語習慣의 差異가 있음을 無視하고 「西洋式」 語法에 맞추어 翻譯한데서 發生하는 誤謬이다.**

셋째는 우리말에 있는 漢字語(주로 日本에서 使用하는 漢字語)로 번역하거나 또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말의 「배」가 船 및 「배」 등의 意味를 갖는 데 「배가 아프다」에서 「배」를 「Boat」로 英譯하는 것과 같은 誤謬를 가리킨다.

**예를들면 英語文章 「Don't you want to drink more?」라는 疑問에, 「No, I don't」라고 答한 경우의 「No」를 「아니오」라고 번역한 것과 같은 誤謬이다. 이것은 「No」가 「아니오」로 直譯될 수 있으나 上記 文章의 경우에는 「No」를 「예」로 번역해야 우리말 用法에 맞는 것이다. 따라서 「No, I don't」의 우리말 번역이 「예, 안먹겠습니다」가 되어야 精確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는 日製英語 單語를 複寫함으로써 國籍없는 經濟用語를 創出한 경우이다.

本稿에서는 大學敎材用 專門書籍에 나타나는 經濟用語 가운데 誤譯된 用語를 찾아내어 誤譯된 原因을 把握하고 새로 導入되는 學術用語 번역에 보다 細心한 注意를 경주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

II. 誤譯된 經濟學 用語

1. 第 1 類型

第 1 類型에 屬하는 經濟學 用語는 同一한 英語單語가 두개의 相異한 意味를 갖는 경우 經濟學에서 使用된 意味가 무엇인지를 確實히 把握하지 않고 번역함으로써 誤譯된 用語들이다.

1) Arbitrage

이 用語는 商業에서 「Arbitrage」로 經濟學에서 「Interest Arbitrage」 「Gold arbitrageur」 「Arbitrated rate」 등으로 쓰이고 있다. 前者는 例를 들어 國際貿易에서 輸出入 業者間에 紛爭이 發生한 경우 第 3 者에 依하여 解決하는 것을 意味하며 後者는 例를 들어 「Interest arbitrage」의 경우 「arbitrage」는 두개의 相異한 金融市場間에 利率의 差異가 있을 경우 한 市場에서 換을 買入하여 다른 市場에 轉賣하는 것을 意味한다.

原語로 「arbitrage」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相異한 意味를 갖고 있다. “① Buying of bills of exchange, stocks in one market and sell them at a profit in another market, ② Settlement of a dispute by a person chosen to hear both sides and come to a decision,” (Webster, p 70)

따라서 引用句 內 ①은 두개의 相異한 市場間의 價格差異를 利用하여 利得을 보고자 한 市場에서 換을 買入하여 轉賣하는 것을 意味하고 ②는 紛爭이 發生한 경우 第 3 者の 判斷에 의하여 解決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商業에서 「arbitrage」는 引用句 內 ②의 意味로 使用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에 合當하는 우리 말에는 「裁定」 또는 「仲裁」이 있다.

그런데 經濟學에서 「Interest arbitrage」 「Gold arbitrageur」 등에서 「arbitrage」는 引用句 內 ①의 意味를 가지며 우리말의 「裁定」 또는 「仲裁」와는 전혀 無關한 用語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經濟學에서 「Intrest arbitrage」를 「金利裁定」(安承喆*, p.232 李孝求 p.79) 또는 「利子裁定」(朴振根, p.363)으로 번역하거나, 「Gold arbitrageur」를 「金仲裁者」(金信行, p.549)로 번역한 것은 明白한 誤譯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引用句 內 ②의 意味, 즉 第3者에 의한 紛爭解決이라는 意味만을 가진 우리말의 「裁定」 또는 「仲裁」을 두 市場間의 轉賣라는 뜻을 가진 經濟學 用語 「Arbitrage」에 轉用하기 보다는 그에 適當한 우리말이 없는 듯 함으로 차라리 原音을 따서 「아비트라지」(趙誠煥, p.62 : 李承潤, p.322)로 表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②의 意味밖에 없는 「裁定」이라는 用語를 經濟學에서 ①의 意味로 使用하는 데서 생기는 混亂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Credit

「Credit」는 經濟學에서 두가지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하나는 「Credit loan」 「Credit transaction」 「Credit insurance」等이고 또 하나는 「Credit multiplier」 「Credit creation」 「Credit supply」等이다. 前者는 「信用貸出」, 「信用去來」 「信用保險」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後者는 「信用乘數」(趙淳, p.550), 「信用創造」(朴洪立, p.463), 「信用的 供給」(韓國銀行, p.109)으로 번역되고 있다.

「Credit」은 原語로 “⑦ a sum of money made available by a bank, on which specified person or firm may draw... ⑨ a trust in one's integrity in money matters and one's ability to meet payments when due...” (Webster, p.332 ~333).

그러므로 「Credit insurance」(信用保險), 「Credit loan」(信用貸出) 「Credit transaction」(信用去來)에서 「Credit」은 「믿는다」라는 引用句 內 ⑨의 意味로 使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우리말 「信用」의 意味와 一致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Credit multiplier」 「Credit creation」 「Credit supply」에서 「Credit」은 「믿는다」라는 意味가 아닌 「貸付資金」이라는 上記引用句 內 ⑦의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믿는다」라는 意味만을 가진 우리말의 「信用」으로 번역하여 「信用乘數」 「信用創造」 「信用的 供給」等으로 번역하는 것은 誤譯이라고 생각한다. 이 誤譯 때문에 「信用的 供給」이 무엇을 意味하는지 專門家 이외는 짐작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 경우의 「Credit」은 「貸付資金」으로 번역하여 「信用供給」보다는 「貸付資金供給」이 적당하리라고 생각한다.

*관호에 밝힌 著者名은 各 著者가 그 用語의 번역에 責任이 있다는 意味가 아니라 同 著者가 執筆한 著書에 同 用語가 나타남을 例示할 뿐이다.

3) Free

「Free」는 「Free goods」와 「Free Reserve」 두가지 用法으로 經濟學에서 使用되고 있다. 前者는 「自由財」(朴 洪立, p.5; 趙誠煥, p.50; 李享純, p.360), 後者는 「自由支準」(趙淳, p.592)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그런데 「Free」의 意味는 “① not under the control of some other person or some arbitrary power; able to act or think without compulsion or arbitrary restriction…⑦ with no charge or cost, gratis…” (Webster, p.555) 등이다. 따라서 引用句內 ①의 뜻은 우리말 「自由」에 해당하며 ⑦은 「代價를 지불하지 않는, 공짜의」 意味를 갖는다. 그러므로 經濟用語 가운데 「Free reserve」는 「어떤 制約도 없이 마음대로 處分할 수 있는 支拂準備金」을 意味하기에 「自由支準」이라는 번역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Free goods」에서 「Free」는 「어떤 制約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處分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 아니라 「代價를 支拂하지 않는, 공짜의」 意味로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 「自由」는 「공짜」라는 意味는 없으므로 이를 「自由財」라고 번역한 것은 誤謬라고 생각한다. 보다 바람직한 번역은 「無價財」라고 생각한다.

4) Liquidity

이 用語는 經濟學專門誌 뿐만 아니라 日常新聞, 雜誌에서도 廣範圍하게 使用되고 있다. 이 用語는 「Liquidity」, 「Liquidity trap」 「Liquidity dilemma」 등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流動性」(南應祐, p.244; 趙淳, p.525; 李承潤, p.38; 金信行, p.583; 李享純, p.451)으로 번역되고 있다.

「Liquidity」의 語源 「Liquid」는 “①readily flowing, fluid……④ in cash or readily convertible into cash…” (Webster, p.824)라는 意味를 가지며 그 名詞形이 「Liquidity」이다. 引用句內 ①의 意味는 우리말 「流動」에 해당하고 ④의 意味는 우리말 「貨幣로 交換할 수 있는 程度」이다. 따라서 經濟學 用語로써 「Liquidity」는 ①의 意味가 아니라 ④의 意味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번역할 때 ④의 뜻이 없고 ①의 뜻만을 가진 우리말 「流動性」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誤謬라고 생각한다. 우리말 「流動性」은 「액체」라는 뜻은 있으나 「現金化할 수 있는 程度」라는 意味는 없기 때문이다.

이 誤譯 때문에 經濟學을 처음 배우는 사람 또는 이 用語를 처음 대하는 사람은 그 意味를 짐작조차 할 수 없기가 십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Liquidity」는 「流動性」보다는 예를들어 「換金性」또는 「換錢性」으로 번역하면 그 意味를 적어도 짐작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5) Fund

이 用語는 「IMF」 또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Exchange Stabilization Fund」等 두가지 다른 意味로 쓰이고 있다.

우선 「Fund」의 意味를 보면 “① a sum of money set aside for some particular purpose, ② an organization that administers such a fund,” (Webster, p.565)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引用句內 ①은 우리말의 「基金」에 해당하며 ②는 基金을 管理하는 「機構」를 意味한다.

따라서 上記 IMF의 「Fund」는 引用句內 ②의 意味로써 使用된 것이며 「Exchange Stabilization Fund」에서 「Fund」는 ①의 意味로 使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IMF의 「Fund」를 機構라는 뜻이 없고 「基金」이라는 뜻만을 가진 「國際通貨基金」(趙淳, p.602; 金信行, p.302; 安承喆, p.314; 朴振根, p.232; 趙東善, p.60; 李亨純, p.640)으로 번역한 것은 誤譯이라고 생각한다.

「IMF」는 專門書籍에서 아래와 같이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國際通貨基金의 勸告에 의하여…”(趙淳, p.602), “IMF는 그 나라에 IMF資金의 利用資格을 停止할 수가 있는 것이다.”(李亨純, p.659), “이상과 같은 世界의 問題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IMF가 취한 새로운 措施는…”(朴振根, p.491) 等等에서 IMF의 「Fund」를 基金 또는 「돈」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異質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基金 또는 돈이 어떻게 勸告를 하고, 무슨 資格을 停止하고, 무슨 措置를 取할 수 있는가 하고 反問해 볼때 그 어휘가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異質感은 「Fund」를 「基金」이라고 誤譯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本來의 뜻인 「基金을 管理하는 機構」로 번역하면 그 機構가 勸告를 하고 資格을 停止한다고 말하게 되어 意味가 통하고 異質感이 없어짐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돈 또는 基金의 意味로 쓰여진 「Exchange Stabilization Fund」는 「換安定基金」으로 번역함이 마땅하나 IMF는 예를 들어 「國際通貨基金管理處」 또는 「國際通貨機構」라고 번역하는 것이 原意에 接近하리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IMF」라고 그대로 使用함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한다.

6) Rights

IMF로 부터 會員國이 特別 引出할 수 있는 金額 또는 證書를 意味하는 國際經濟用語 「Special Drawing Rights」 또는 「SDR」은 우리말로 「特別引出權」(金信行, p.302; 安承喆, p.314; 朴振根, p.474; 李孝九, p.243; 趙東善, p.86; 李亨淳, p.651)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그런데 「Rights」의 意味는 “① Power, privilege, ②

(pl) interest in property, real or intangible... ④ negotiable certificate indicating the privilege given to stock holders" (Webster p.225) 등이다. 따라서 引用句內 ①은 「權限」을 意味하고 ④는 그러한 權限을 行使할 수 있는 特典을 表示한, 말하자면 貨幣와 같은 「證書」를 意味한다. 그런데 SDR에서 「Rights」를 「權限」이라는 뜻만을 가진 우리말 「權」으로 번역한 것은 誤譯이라고 생각한다.

SDR, 1單位는 달러貨 몇單位의 價値가 있다던가 「SDR 配分」 또는 「SDR 保有高等」을 말할 때 「特別引出權 配分, 特別引出權 保有高等」等等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말 「權」字가 貨幣와 같은 「證書」라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SDR은 예를 들어 「特別引出券」 또는 「特別引出證書」라고 번역하는 것이 原意에 가까우리라고 생각한다.

7) Unitary Elasticity

이 用語는 彈力性의 크기를 測定하는데 彈力性의 數値가 「1」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 「Unitary Elasticity」에서 「Unitary」는 「Unit」에서 派生된 單語인데 「Unit」의 意味는 “① the Smallest whole number; one ② any fixed quantity amount, distance, measure, etc. used as a standard……” Webster, p.1552) 이다. 그러므로 引用句內 ①은 숫자 1을 意味하고 ②는 「單位」를 意味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Unitary Elasticity」에서 「Unitary」는 「1」이라는 ①의 意味로 使用되었지 「單位」라는 ②의 意味로 使用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 「單位」는 英語의 「Unit」와는 달리 ②의 意味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이라는 意味로 使用된 「Unitary」를 「單位」라고 번역하여 「Unitary Elasticity」를 「單位彈力性」이라고 번역한 것은 誤譯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Unitary Elasticity」는 예를들어 「單一彈力性」이라 번역하는 것이 本來의 意味에 접근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8) Cross-section

이 用語는 統計用語로써 「Cross-section data」 「Cross-section analysis」 등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예를들어 「Cross-section data of consumption expenditure」의 경우 各界 各層 소비자의 지출에 관한 자료라는 것이다.

「Cross-rection」의 原意는 “① a) a cutting through something, esp. at right angles to its axis, b) a piece so cut off...② a sample that has enough of each kind in it to show what the whole is like……” (Webster, p.339)이다. 引用句內 ①은 우리말 「橫斷面」에 해당하며 ②는 全體를 代表할 수 있는 즉 母集團의 個別 特性을 代表할 수 있는 標本의 集合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Cross-section

data]나 「Cross-section analysis」에서 「Cross-section」은 引用句內 ①의 橫斷面이라는 意味가 아니고 그 것과는 전혀 相異한 ②의 意味로 使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 「橫斷面」은 ①의 뜻은 가지만 ②의 뜻은 없으므로 統計用語로 쓰인 「Cross-section」을 「橫斷面」(趙淳, p.486; 朴洪立, p.418; 趙誠煥, p.318; 李亨淳, p.324)이라고 번역한 것은 誤譯이라고 생각한다.

不幸이도 「Cross-section」을 正確히 反映해 주는 우리말 用語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비유로 「社會의 斷面」이라고 할 때 쓰는 「斷面」이 「Cross-section」에 가까운 意味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Cross-section data」와 「Cross-section analysis」를 「斷面資料」「斷面分析」이라고 번역하면 充實하지는 않으나 原意에 近似하다고 생각한다.

9) Cycle

이 用語는 「Business cycle」「Cyclical Unemployment」等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말로 「景氣循環」(朴洪立, p.641; 趙誠煥, p.512; 李亨純, p.678)과 「循環的失業」(李承潤, p.245)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런데 「循環」이라는 우리말은 “쉬지않고 잇달아 돌” (국어대사전, p.57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惡循環」(Vicious Cricle)과 같이 어떠한 事件이 進行하면서 다시 出發點으로 歸着하는 것을 意味하는 데 반해 「Cycle」은 “a period of time within which a round of sequence of regularly recurring events or phenomena is completed” (Webster, p.351)란 意味를 가지고 있어 어떠한 事件이 一定한 方向으로 進行하면서 그 方向을 變動시키기는 하나 다시 出發點으로 歸着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러므로 「Cycle」을 「循環」이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變動」 또는 「振動」으로 번역함이 原意에 보다 더 接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第2類型

第2類型은 東西洋 語法の 差異를 無視하고 번역함으로써 생기는 誤譯들인 데 제일 좋은 예로 「forward」와 「backward」를 들 수 있다. 「forward」와 「backward」가 어떠한 단계를 表示하는 데 있어 根源에 가까운 쪽과 完結에 가까운 쪽을 區別하는 概念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時間的으로 過去에 가까운 쪽과 未來에 가까운 쪽을 區別하는 概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前者의 例로는 「forward linkage effect」「forward integration」을 들 수 있고

後者の 例로는 「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을 들 수 있다.

1) Forward linkage effect vs. Backward linkage effect

「Forward」는 “① at, toward, or of the front, or front part” (Webster, p. 550)라는 意味를 가지고 있어 直譯하면 우리말의 「前方」에 해당하고 있다. 물론 「backward」는 「forward」와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單語는 經濟學에서 「forward linkage effect」와 「backward linkage effect」로 使用되고 있는 데 이 用語는 우리말로 「前方波及效果」(朴振根, p.207) 또는 「前方聯關效果」(朴洪立, p.581; 李享純, p.845) 또는 「前方連鎖效果」(趙淳, p.765), 및 「前轉連鎖效果」(李承潤, p.495)로 번역되고 있어 「forward」는 모두 「前方」 또는 「前轉」의 意味로 直譯하고 있다. 물론 「backward linkage effect」는 「後方波及效果」「後方連鎖效果」「後轉連鎖效果」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면 「forward linkage effect」와 「backward linkage effect」의 經濟的 意義를 考察해 보자. 어떠한 製品을 生産하는 데에는 原料로 부터 시작해서 여러개의 中間財 生産段階를 거쳐서 完製品 生産에 이르는 生産過程을 거치게 마련이다. 만약 輸出이라던가 또는 技術開發로 中間財 産業에서 原價切減이 發生한 경우, 그 惠澤이 波及되는 方向을 說明하는 用語로써 위의 用語가 使用되고 있다. 이 때 技術開發이 發生한 中間財 産業을 基點으로 하여 原料産業 方向으로 原價切減의 惠澤이 波及될 경우 이를 「backward linkage effect」라고 하고 完製品 製造産業 方向으로 그 惠澤을 波及시킬 경우 이를 「forward linkage effect」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西洋에서 「forward」와 「backward」의 概念은 前者가 어떤 段階 가운데 完結에 가까운 쪽을 가리키며, 後者が 根源에 가까운 쪽을 가리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東洋에서 「前方」과 「後方」이라고 使用할 때의 前後 概念은 우리말에서 「前生」과 「後生」을 比較해 볼 때 여러개 過程 가운데 「前」은 根源 部分을 意味하고 「後」는 完結 部分을 意味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東洋에서 「前」은 西洋에서 「forward」와는 正反對로 使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換言하면 東西洋 間에 前後의 概念이 正反對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東洋에서 「前」이라고 하는 것을 西洋에서는 「backward」라고 하며 東洋에서 「後」라고 하는 것을 西洋에서는 「forward」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forward linkage effect」와 「backward linkage effect」를 東西洋間에 語法的 差異가 있다는 것을 無視하고 글자를 그대로 直譯하여 前者를 「前方波及效果」 後者를 「後方波及效果」라고 번역하는 것은 明白한 誤譯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forward linkage effect」의 正確한 번역은 「後方波及效果」이며 「backward linkage effect」는 「前方波及效果」라고 생각한다.

2) Forward Exchange Transaction

「Forward exchange transaction」와 같은 用法으로 「forward」가 使用되고 있는 것은 「forward exchange market」 「forward exchange」 「forward exchange rate」等이다. 이는 大部分 證券 또는 外換市場에서 現物換去來(spot exchange transaction), 現物市場(spot market), 現物換(spot exchange), 現物換率(spot exchange rate)等과 對立하는 概念으로 使用되고 있다.

上記 用語들에서 공통되는 「forward exchange」는 우리말로 「先物換」(李承潤, p.322; 金信行, p.366; 李儼九, p.108; 安承喆 p.220; 朴振根, p.428; 李孝求, p.108; 趙東善, p.287)으로 번역하고 있다.

「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의 意味를 살펴보면 이는 外換市場에서 現在 契約을 하고 物件은 3個月 또는 6個月 「後」에 引渡하는 去來를 말한다.

그런데 西洋에서 「forward」의 意味는 “(2) toward the future [to look forward]” (Webster, p.550)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現在를 基點으로 하여 未來 쪽을 「forward」라고 하며, 過去쪽을 「backward」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東洋에서 「先」은 「先祖」, 「先人」, 「先代」等으로 過去쪽을 가리키며 「後」는 「後孫」, 「後代」等 未來쪽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東西洋 間에 「先後」의 時間 概念이 正反對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東洋에서 「先」에 해당하는 것을 西洋에서는 「backward」라 하고 東洋에서 「後」에 해당하는 것을 西洋에서는 「forward」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forward exchange」를 「先物換」이라 번역하는 것은 明白한 誤譯이라고 생각한다.

東西洋 間에 語法의 差異가 있음을 無視하고 「forward exchange」를 「先物換」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많은 混亂을 惹起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先物去來」라면 누구든지 「物件을 먼저(先) 引渡하는 去來」라고 생각한 것이임이 당연한데 經濟學者들은 이를 「物件을 나중에(後)에 引渡하는 去來」라고 主張하고 있으니 마치 「夜」라고 써놓고 그 뜻은 「낮」을 意味한다고 主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多幸이도 會計學에서는 이 「forward」를 제대로 正確히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簿記에서 다음 달로 移越할 月末殘高를 「forward balance」라고 하는데 이를 「前期移越」이라고 하지 않고 「後期移越」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forward exchange」는 「先物換」이 아니라 「後物換」이라 번역하여

「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은 「後物換去來」 또는 「後物去來」도, 「forward exchange market」은 「後物換市場」, 「forward exchange rate」은 「後物換率」 또는 「後物換時勢」라고 번역해야 正確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레야만 「物件을 後에 引度하는 去來」가 「後物去來」가 되어 우리의 語法과 先後概念에 合致한다고 생각한다.

3. 第3類型

第3類型은 우리말 사전에도 나타나지 않는 漢字語를 使用한다던가 英語사전에도 나타나지 않는 國籍없는 英語單語를 使用하는 것들이다.

1) Gross(租)와 Concession(讓許)

「Gross」는 「Gross substitute」 「Gross complementary」 「Gross terms of trade」 등으로 쓰여지고 있는 데 이 경우 「Gross」를 「粗」로 번역하여 「粗代替財」(趙誠煥, p.66; 金信行, p.417) 「粗補充財」(趙誠煥, p.66), 「粗交易條件」, 「粗附加價值」(李亨純, p.374), 「粗投資輸入」(金信行, p.169) 등으로 使用하고 있다.

그런데 「粗」라는 漢字語는 우리말에는 없는 글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우리 漢字語는 「總」이 있다. 그러므로 「Gross」를 번역할 때 日本에서 使用하는 「粗」를 利用할 것이 아니라 「總」字를 使用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例로는 「Tariff Concession」에서 「Concession」을 「讓許」(安承諧, p.126; 李亨純 p.674)로 번역하고 있는 데 「讓許」는 우리말에 없는 日人들이 使用하는 漢字語이다. 따라서 「Concession」은 “제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음”(국어대사전, p.649)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 「讓步」와 똑같은 意味를 가지고 있으므로 「讓許」보다는 「讓步」가 보다 바람직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2) Treasury

Treasury는 「Treasury notes」 「Treasury bills」 「Treasury bonds」 등으로 使用되고 있는 데 이 때 「Treasury」의 우리말 번역은 하나 같이 「財務省」(李孝求, p.121; 李承潤, p.202; 金信行, p.605; 趙淳, p.360)이다.

外國의 政府機構나 組織名을 우리말로 옮길 때에는 우리나라의 政府組織이나 機構名에 「準」해서 번역해야만 마땅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레야만 그 外國의 政府機構가 어떠한 役割을 하는 것인지 대충 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우리나라 아닌 또 다른 外國의 政府組織이나 機構名에 準해서 번역하면 그 外國의 政府組織과 그 組織의 業務에 밝지 못한 사람은 唐慌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政府組織에 「省」은 없으므로 「Treasury」를 「財務省」 대신 「財務部」라고 번역해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日本이나 中國에서 「Treasury」를 「財務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日本이나 中國 政府 組織 가운데 「Treasury」에 가장 가까운 것이 「財務省」이었기 때문이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關聯된 것으로 外國 「Treasury」의 長은 大部分 「財務相」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韓國의 政府 組織에 準하여 「財務長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한다.

3) Inflation

「Inflation」은 經濟學專門用語로써 가장 大衆化된 用語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用語에 해당하는 적당한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이를 外來語로 취급하여 우리말로 表記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外來語 表記時에 이를 「인플레이」(朴振根, p.423; 安承喆, p.176; 李亨純, p.768)라고 쓰는 경우를 散見할 수 있다. 이 것은 우리의 外來語 表記法에도 없는 소위 日製英語 單語이다. 우리가 이것을 直輸入하여 使用하는 것은 한번 再考해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유사한 것으로 「디플레이 갭」(Deflationary gap)(李亨純, p.774; 趙淳, p.494) 「인플레이 갭」(Inflationary gap)(趙淳, p.494; 李承潤, p.219) 「데모効果」(Demonstration Effect)等を 列學할 수 있다.

더구나 배우는 학생 가운데에는 「인플레이」를 純粹한 英語單語로 착각하여 「Infl」等으로 表記하는 경우도 있어 教育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

III. 結 論

지금까지 大學校 專門敎科書籍에서 發見될 수 있는 誤譯된 經濟用語들을 原因別로 區分하여 誤譯임을 보이 주었다. 지금까지 考察된 誤譯된 用語들은 誤譯된 經濟用語의 一部에 해당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誤譯된 經濟用語를 찾아내고 校正하도록 敎科書를 執筆하는 學者및 專門家들이 모두 努力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學術用語, 特別 經濟學 用語와 같이 專門誌 뿐만 아니라 新聞, 雜誌를 通하여 日常用語로 一般大衆에게 波及될 可能性이 많은 外來用語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專門家들은 각별한 注意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말로써 「液體」라는 意味 밖에 없는 「流動性」을 「預金」과 같은 換金性이 높은 金融資産이라는 概念으로 使用할 때 생기는 混亂을 看過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번 誤譯되어 日常化되면 校正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 誤譯되어 大衆되거나 모든 專門家들이 使用하게 되면 그 混亂이 當代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學術用語를 배우는 後孫에게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當然히 物件을 먼저 引渡한다는 뜻을 가진 「先物」을 「物件을 後에 引渡하는」 것으로 理解해야 하는 後孫들의 恠惑을 看過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誤譯을 校正하면 當代에는 일차 混亂이 오겠지만 後孫들을 위해 試圖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 誤譯된 專門用語들이 슬금 슬금 우리말사전에 끼어들고 있어 우리말 自體를 混濁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말사전에 經濟學에서만 特別히 使用한다는 表示를 하면서 「信用」을 「貸付金」이라고 說明하기 始作했다. 만약 韓國語의 「배」가 「胃」와 「船」의 뜻이 있으나 英語의 「Boat」도 「胃」의 뜻을 갖는 다고 英語辭典에 삽입시킨다면 우리는 이를 조소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도 이러한 愚를 범하지 말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金信行, 「國際經濟論」(法文社, 1977)
 南應祐, 「價格論」(博英社, 1977)
 朴昇, 「經濟發展論」(博英社, 1977)
 朴振根, 「國際經濟學」(博英社, 1975)
 朴洪立, 「經濟學原論」(博英社, 1978)
 安承喆, 「國際經濟의 理論과 實際」(法文社, 1977)
 李承潤, 「貨幣金融新論」(法文社, 1977)
 李儼九, 「國際金融論」(에코노미아, 1977)
 李甲燮, 「貨幣金融論」(實學社, 1977)
 李亨純, 「經濟學原論」(博英社, 1977)
 李孝求, 「現代外換論」(博英社, 1977)
 趙東善, 「國際金融論」(法文社, 1976)
 趙誠煥, 「經濟原論」(博英社, 1978)
 趙淳, 「經濟學原論」(法文社, 1978)
 鄭道泳, 「國際經濟」(博英社, 1978)
 「Webster's New World Dictionry」(Collins World, 1974, 2nd Edition)
 양주동, 「국어대사전」(대성출판, 1978)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政策」(1977)